

- 1 -

안면부의 유구낭충증의 1 증례

국군수도통합병원

김세훈 · 황명순 · 추연수 · 이병홍

포충증은 주로 유구낭충에 감염된 환자에 larval cysticercoid stage 때 soft tissue 에 전이되어 이 cysticercus 가 죽음으로써 변성되고 석회화를 일으켜 국소적 소견으로는 nontender mass, 그리고 X-ray 상 typical calcification 을 일으키며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fibrotic cyst 속에 scolex 의 hooks 와 sucker 를 볼 수 있다.

만약 cysticercosis 가 두뇌속으로 전이된다면 두뇌의 침범된 부위의 국소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후는 매우 나쁘다.

조직학적 소견상 포충증으로 확진되면 환자를 입원시켜 전신을 검사하여 nontender mass 가 만져지면 저출하여 주어야 한다.

저자들은 우측 안면부에 nontender mass 를 주소로 하여 내원한 24 세 남자에서 우측 안면부에 전이된 유구낭충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 -

실험적 중이삼출액의 세포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원주대학 의학부

심상열 · 문태용 · 윤강묵 · 박순일

연세의대

박 인 용

삼출성중이염은 이관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중이강내 삼출액으로 인하여 이폐색감, 이내충만감, 난청 및 이명을 보이는 질환으로 Politzer (1867) 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이래 이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최근 20 여년간 광학 및 전자현미경의 발달과

이관기능에 대한 관심의 증진으로 병인규명 및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원인 및 병인으로서는 Politzer, Zauful 과 Bezold (1894) 에 의해 주창된 hydr-ops ex vacuo theory (補空水腫說)가 가장 지지를 받고 있으나 그외에도 Robinson 과 Nicholas 등 (1951) 에 의한 부비동, 비인강, 이관주위 림파관의 폐쇄, 특히 인후 림프절부위의 림파관의 폐쇄로 이관기능의 장애가 온다는 설과 Senturia (1971) 등의 세균감염설, Jordan (1949), Derlachi (1957) 및 Draper (1967) 등의 알레르기설이 있다. 또한 삼출성중이염의 삼출액의 근원에 대해서도 Tonder 등 (1971)은 혈청의 유출액이라 단정되었으나 Lim (1970) 등은 증식된 점액선에서 분비된다고 하였으며 삼출액의 세포학적 분석 및 세균배양도 여러 학자에 의해 행해졌으나 Senturia (1971) 등은 세균을 검출하였고 Siirala (1956), Rankin (1970) 등은 오히려 삼출액의 정균작용 (Bacteriostatic Action) 으로 무균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이관폐쇄로 삼출성중이염을 유발시켜 Zauful 등 (1894) 의 보공수층설을 증명하고 그 삼출액의 도말표본 및 세균배양을 시행하여 중이강점막 변화와의 관계를 보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실험재료로서는 고막소견이 정상인 한국산 고양이가 32 마리 (64 耳) 를 사용하여 5 마리 (10 耳) 를 정상대조군으로 하고 27 마리 (54 耳) 를 삼출성중이염을 유발한 실험군으로 분류하여 정상대조군은 seconal (20mg/kg) 을 정맥마취 시킨 후 수술현미경하에서 고막천공을 시켜 중이강점막에서 도말표본과 세균배양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은 마취 후 양와위로 하고 연구개 정중선 부위에 약 1 cm 정도로 종절개하여 이관의 인두측 개구부를 노출시킨 다음 2 × 3 × 2 mm의 silastic piece 2 개와 이어서 2 × 3 × 2 mm의 Gel-foam (absorbable gelatine sponge) piece 2 개를 이관내로 보충삽입시키고 전기소작하여 완전폐쇄시킨 후에 연구개를 봉합하여 삼출성중이염 유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술후 창상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앰피실린 (100mg/kg) 을 2 일간 근육 주사 하였으며 술후 12 시간, 18 시간, 1 일, 3 일, 5 일, 7 일, 10 일, 30 일 및 60 일에 각각 3 마리 (6 耳) 씩 수술현미경 하에서 고막을 절개하여 삼출액의 형성시기를 관찰하고, 삼출액이 형성된 경우에는 도말표본을 통한 세포학적 분석과 세균배양을 하였으며 시기별로 중이강 점막의 수술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적 변화를 관찰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이관폐쇄술후 18 시간에 최초로 삼출액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는 전실험군에서 삼출성중이염이 유발되었다.

2) 도말표본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호산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호중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제 14 일 이후에는 단핵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삼출액의 세균배양검사에서는 전예에서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4) 수술현미경적 소견은 이관폐쇄후 제 14 일에 점막 비후가 가장 심하였으며 삼출액의 양도 가장 많았다.

5) 중이강점막의 병리학적 소견에서는 상피세포, 배세포 및 혈관의 증식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염증세포는 도말표본에서와 같이 제 14 일 이전에는 호중구가, 그 이후에는 단핵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 3 -

이절 (Otofuruncle) 의 임상통계학적 및 세균학적 고찰

성분도병원

차인숙 · 이계실 · 김정중 · 김광수

저자들은 1980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성분도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여 이절치료를 받은 환자 297 명에 대한 임상통계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내원환자에 대한 이절환자의 비는 27,149:991 (3.6%) 이었다.

2) 이절의 연령분포는 0~10세가 63%로 가장 많았다.

3) 이절환자의 남녀비는 1.3:1 이었다.

4) 이절의 월별 발생빈도를 보면 7, 8월이 가장 많았다.

5) 왼쪽귀에 이환율이 오른쪽보다 다소 많았다.

6) 이절의 발생부위를 보면 Posterior (21%), Anterior (19%), Multiple (13%) 순이었다.

7) 초진당시 증상의 기간은 평균 4.7 일이었다.

8) 이절환자중 35%에서 I & D 를 행했다.

9) 이절의 가장 많은 원인균은 Staphylococcus aureus (88%) 였다.

10) 평균치료가 시간은 5.3 일이었다.

- 4 -

삼출성중이염과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의 임상적 고찰

연세의대

김영명 · 박인용 · 장태영 · 심형보

삼출성 중이염은 이 질환중 가장 흔한 질환을 차지하는 질환의 하나로서 1869년 Parrot가 최초로 기술하고 치료법을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그 진단 및 다양한 치료법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이중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은 1954년 Armstrong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빈번 발전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합병증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자 등은 삼출성중이염의 임상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의 치료효과 및 합병증을 조사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 하고자 1981. 1. 1부터 1982. 2. 28 까지 1년 2개월 동안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을 시행한 환자 97명 (157 귀)을 대상으로 하여 삼출성중이염의 증상, 연령분포, 동반질환, 고막의 이학적 소견, 청력손실의 정도와 수술후의 청력증진, 합병증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통기관으로는 Sheehy의 collar button tube 외, Per Lee tube 였다.

1) 증상의 빈도는 29례중 청력소실 29례 (100%) 이며 19례 (65.6%) 자성강청 (Autophony), 12례 (44.4%) 이충만감 10례 (34.5%)의 순이었다.

2) 연령분포는 6~10세가 42례 (43.3%)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의 성인도 23례 (23.5%)나 있었다.

3) 소아에서는 주로 양측성으로, 성인에서는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동반질환으로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비후가 49례 (50.5%), 부비동염 15례 (15.5%), 비알레르기 4례 (4.1%) 등의 순이었다.

5) 수술 고막소견은 함몰 62귀 (42.7%), 팽윤 37귀 (23.6%), 변색 (21.7%) 등의 순이었으며 특별한 병적 소견이 없는 경우도 29귀 (18.5%)나 되었다.

- 1 -

A Case of Cysticercosis on the Face

**Se Hoon Kim, M.D., Myung Soon Hwang, M.D.
Yeon Soo Choo, M.D., Byung Hong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apital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Cysticercosis is not likely to be the first diagnosis the otologist has in the head and neck area. The fact that this disease may present a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blem is illustrated by one case, appearing in the face of right side. The local finding of a soft nontender mass, the typical calcifications in the soft tissues visible on roentgenograms, and the histopathological findings are described and illustrated.

Attention is drawn to the fact that cerebral cysticercosis, which is a very grave disease, may cause tinnitus, nystagmus, and hearing disturbances.

Recently, the authors have experienced a case of cysticercosis on the face in a 24-year-old male patient.

We presen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s.

*

- 2 -

The Cytological Study of the Experimental Middle Ear Effusion.

**Sang Yul Shim, M.D. Tae Yong Moon, M.D.,
Kang Mook Yoon, M.D. and
Soon Ill Park,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Wonju School
of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In Yong Park,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titis media with effusion, described first by Politzer (1867), is closely related with the function of auditory tube, but its etiology and pathogenesis are not clearly defined yet.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its pathogenesis including hydrops ex vacuo theory which was most reliable nowadays.

In this paper, using cats in experimental animals, hydrops ex vacuo theory was proved and cytological study of the effusion and light microscopic observation of the middle ear mucosa in otitis media with effusion were don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ffusion was found in all experimental groups after eighteen hours of the auditory tube obstruction.

2) In the cytological study of effusion by smear technic, Polymorpholeukocytes were dominant in earlier days but monoclear cells were soon increased and no eosinophils were found.

3) In the culture of the effusion, no bacteria

was cultured.

4) By operating microscope, hypertrophy of the middle ear mucosa observed especially in the fourteen days after auditory tube obstruction and effusion was most remarkable in the fourteen days, also.

5) By light microscopy, there were epithelial hyperplasia, proliferation of goblet cells, capillaries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which showed same distribution as smear technic.

— 3 —

Clinicostatical & Bacteriological Studies of Otofuruncle

**In Sook Cha, M.D., Kye Sil Lee, M.D.,
Jung Joong Kim, M.D., Kwang Soo Kim, M.D.**

*Dept. of Otolaryngology, St. Benedict
Hospital, Pusan*

The Clinicostatical and Bacteriological studies on the otofuruncles were carried out on 297 pts who had visited OPD of ENT depart of St. Benedict Hospital during the 2 years from Jan. 1980, Until Dec, 1981.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otofuruncle ratio to the whole ENT visiting cases was 27,149:991. (3.6%)
- 2) The age distribution showed the highest incidence in 0-10 years. (63%)
- 3) The ratio, male vs female was 180:133 (1.3:1).
- 4) The seasonal incidence showed the highest incidence in July and August.
- 5) The side of otofuruncle was left side (56.7%).
- 6) The site of otofuruncle was posterior (21%), anterior (19%), multiple (13%).
- 7) Average duration of illness on first visiting

was 4.7 days.

8) The numbers of cases who performed I & D was 103 pts. (35%).

9) The most common causative organism was Staph. aureus (88%).

10) Average duration of treatment was 5.3 days.

— 4 —

The Clinical Considerations of Serous Otitis Media and Ventilation Tube

**Young Myoung Kim, M.D., In Yong Pak, M.D.,
Tae Young Jang, M.D., Hyoung Bo Sh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rous otitis media (SOM) is one of the most common otologic diseases which was first discribed by Politzer in 1869. Currently, among many methods introduced to treat SOM, ventilation tube inser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popular and standard method being used. However due to complication of it, there remains many disputable various problems.

In order to review the clinical aspect of SOM and search for the effects and safety of ventilation tube, we studied 97 SOM patients, who had performed V-tube from Jan. 1981 to Feb. 1982 at ENT dept. of Severance Hospital.

Analyzing the clinical symptoms, age distribution, associated disease, otoscopic findings of ear drum, degree of hearing loss, hearing gain after insertion of V-tube and complication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As a subjective symptom, among 29 cases all patients had hearing loss, 19 cases (65.6%) had tinnitus, 12 cases (44.4%) had autophony and 10 cases (34.5%) of the patients had sensation of ear fullness.

— 36 —